

미래성장동력 2007 전시회 개막식 축사

존경하는 과학기술인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대한민국 과학축제, '미래성장동력 2007'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IT·BT·NT에서 환경, 우주 분야에 이르기까지 우리 과학기술의 우수한 성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은 과학의 꿈을 키우고, 국민들은 우리 과학기술 역량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며, 연구개발에 헌신하고 계신 과학기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기술인 여러분,

지금은 과학기술의 시대입니다. 과학기술 수준이 시장의 크기와 시장 지배력을 결정합니다. 세계화, 정보화가 진전됨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한층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경제의 위치가 달라졌고, 경쟁 상대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따라잡는 방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혁신해야 선진국과의 경쟁에

서 한발 앞서갈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과학기술 혁신을 첫 번째 국가발전전략으로 삼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먼저, 연구개발 예산을 2003년 6조 5천억 원에서 올해 9조 8천억 원으로 크게 늘려 왔습니다. 이 예산이 내년에는 10조 9천억 원까지 갑니다. 특히 기초연구의 비중은 2003년 19.5%에서 내년에 25.6%까지 확대됩니다. 예산을 늘렸을 뿐 아니라 사전타당성 조사와 사후 평가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도 높여 가고 있습니다.

국가과학기술 혁신체계도 새롭게 구축했습니다.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출범시켜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지역별 전략산업과 연계된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일곱 개의 혁신클러스터를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의 핵심은 역시 인재 양성입니다. 이공계지원특별법, 이공계 전공자 공직채용 목표제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력을 키우고 처우를 개선하는 데 힘써 왔습니다. 특히 교육에서 취업과 연구, 은퇴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과학기술인을 양성·지원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과학기술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의 과학 경쟁력은 2003년 세계 14위에서 올해 7위로, 기술 경쟁력은 24위에서 6위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랜드연구소는 우리를 과학기술 7대 선진국으로 분류했습니다. 국제특허출원건수도 지난 4년간 두 배 이상 늘어 세계 5위로 올라섰습니다.

2003년 선정한 차세대 성장동력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처음으로 와이브로와 지상파 DMB를 개발했습니다. 하이브리드카와 지능형 로봇은 상용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와이브로가 제3세대 이동통신의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경사입니다. 그만큼 세

계 시장 진출의 전망도 밝아졌습니다.

이 모두가 과학기술인 여러분의 땀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큰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과학기술인 여러분,

세계 시장을 누비고 있는 반도체와 CDMA 기술이 십수 년 전부터 준비한 것이듯이, 지금 우리가 뿌린 씨앗은 장차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과학기술 육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과학 인재를 키우고 여러분이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과학기술 혁신에 더욱 매진하여 국가 경쟁력을 키우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가일층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사를 거듭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